

최은희춤



CHOI EUN HEE DANCE PERFORMANCE



金千興 (인간문화제 제 1호, 제39호)

예술세계의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무용에서도 반드시
새로운 창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원리원칙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무용계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발전적으로
한국 창작무용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국적인 확산과 더불어 국제적으로까지
방향을 모색하는 현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무용계에서도 하루속히
세계를 풍비할 무용이 창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었고
한국 무용계가 꼭 성취해야 할 과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때에 崔恩姬무용단이 함도 부산에서 창작무용 두 편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다니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이번 공연에서 내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無我란 작품이 궁중무용에다 기반을 두고 창작무용화 되었다는 점이다.
전통무용의 창작화라는 새로운 방향에서의 무용이 펼쳐지면서
무용창작의 또다른 한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각기 특징있는 여러 전통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다행이 이번 崔교수의 공연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앞으로는 우리 전통무용에 근거를 둔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공연이 성황리에 마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매자 (이화여대 교수)

신록의 빛으로 충만한 6월입니다.
희망·사랑·영원·정열을 상징하는 6월을
보다 뜻깊게 보내기 위해
여기 최은희 선생의 발표회를 축하하면서
예술의 길은 고난의 길 이기에
인생을 바치지 않고서는 꽃 피울 수 없듯이
자신의 희생없이는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 되기에
더욱 무용작업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화예술이 그렇듯이
한 나라의 문화전통이 제 모습을 갖출때
그것은 또한 세계성을 얻는 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뜻에서 순수 민간예술단체인 최은희 선생의 발표는
지방 무용의 저변확대라는 입각에서 뜨거운 탄사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뜻있고 성공적인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부산은 나에게 있어서는 제 2의 고향입니다. 처음의 고향은 출생하여 부모와 스승 밑에서 성장, 배우터였다면 부산은 나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자 일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진정한 한 인간으로서 예술을 추구하기 위함과 지도를 해 오면서 많은 부족함과 미흡함을 깨닫는 소중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재능이 있는 제자들이 도중에 춤을 포기하고 한 명씩 춤을 떠나갈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밑알 한 알 한 알 주워모으듯 어려움을 마다하고 춤의 외길로 정진하는 제자들도 차츰 늘어나 저마다 스스로 날개짓 하는 모습을 볼 때 대견함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춤에 대한 애정과 발전은 물론 후진 양성에 더욱 많은 애정을 쏟아야 됨과 지역문화 발전에 사명감을 갖게되어 책임감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무대에 서기까지 쉽없이 묵묵히 따라준 배김새단원과 출연진 여러분께 깊은 애정을 느끼며, 이번 무대를 통하여 스스로의 실력배양과 춤 무용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채찍질하여 주신 김천홍선생님, 김매자교수님과 무대에 올리기까지 수고하여 주신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1. 6. 8.

최은희

안무의도

시류가 급변하는 요즘 우리에게 대한 이해와 새 시류에 의한 비판적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산업사회의 물질숭배로 인한 인간정신의 황폐화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즈음 우리춤을 어떻게 출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추어야 할 것인가 끊임없는 의문과 갈등은 나의 춤창작에 있어서 생생한 원동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작품은 우리춤의 현대적인 수용에 있어서 민족이 갖는 고유한 자연관에 근거하여 현대화의 따른 갈등에 초점을 두어 형상화하였습니다.

제 1부 무아(無我)는 궁중무용과 창사에 바탕을 두고 옛 선인들이 자연의 율조에 따르는 정신적 종교적 바탕위에서 갈구하는 선의 자세, 곧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질서와 화합을 꾀함으로써 이상적인 인간, 이상적인 국가로 이룩하고자 하여 인격 수양으로 삼아 현실을 초월한 듯한 영적인 신비함을 동반한 맛을 오늘의 무대에 맞게 재구성하였고,

제 1부가 전통기법을 중심으로하여 재창조하는 작업이라면 제 2부는 철저한 자기 인식에서 출발한 개성적이며 표현성이 강한 작품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민족 심성에 호소하여 오늘날 현대인에게 숨겨진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둔 작품인 「어두운 날들의 바람은 그치고…」는 현실적인 삶에 부딪히는 불가사의한 인간의 갈등들을 곧 우리 민족전체가 감내해온 아픔과 수난그러한 아픔을 딛고 새롭게 탄생하고 화합하는 이상향에 대한 바람과 기원으로 제시하여 본 작품입니다.

* 작품을 만든사람들 * 안무·구성 : 최은희 / 훈련 : 윤보경

음악 : 신혜영 미술 : 정진윤 의상 : 김성만, 이수동

무대감독 : 권영준 조명 : 신상준 음향 : 정정식 섭외 : 정미숙